

아산 기산동 222-5번지의 농산물가공시설 부지내  
文化遺蹟 發(試)掘調査 略報告書



2009. 8



嘉耕考古學研究所  
Gakyung Institute for Archaeology

# I. 調査概要

금번 조사는 아산 기산동 222-5번지의 농산물 가공시설 부지에 대한 문화유적 시굴조사이며, 전체면적은 777㎡로서 당초 지표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지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 시설물 건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협의과정에서 해당지역이 학계에 이미 보고된 기산동산성 내에 위치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해당 지자체인 아산시에서 사업부지내 문화유적의 구체적인 존재여부 확인 및 차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금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곳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222-5번지의 1필지이며, 주변을 반월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산동산성 내 소곡부지역으로서 기존의 지표조사에서도 연못지가 존재하여 추정 집수지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sup>1)</sup>. 또한 시굴조사를 착수하기 이전, 본 연구소에서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 및 주변 일대에서 어골문 기와편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유적 존재의 징후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소는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총 5일간 일정(현장조사 2일)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유적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6월 5일자로 조사진행을 중지하였다가 재착수하여 금번 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금번 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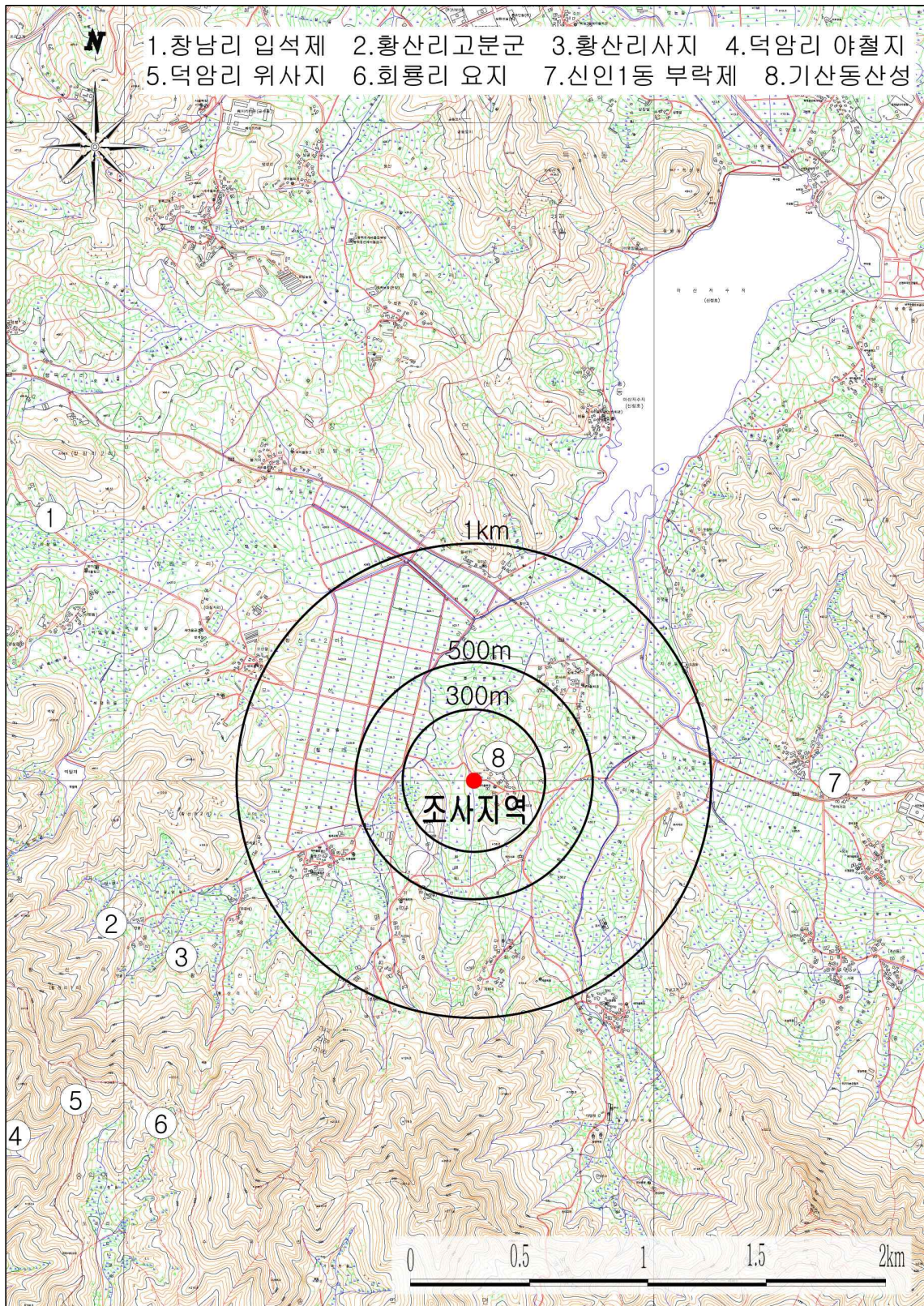
단장·책임조사원 : 오 규 진 (가경고고학연구소장)

조 사 원 : 이 관 섭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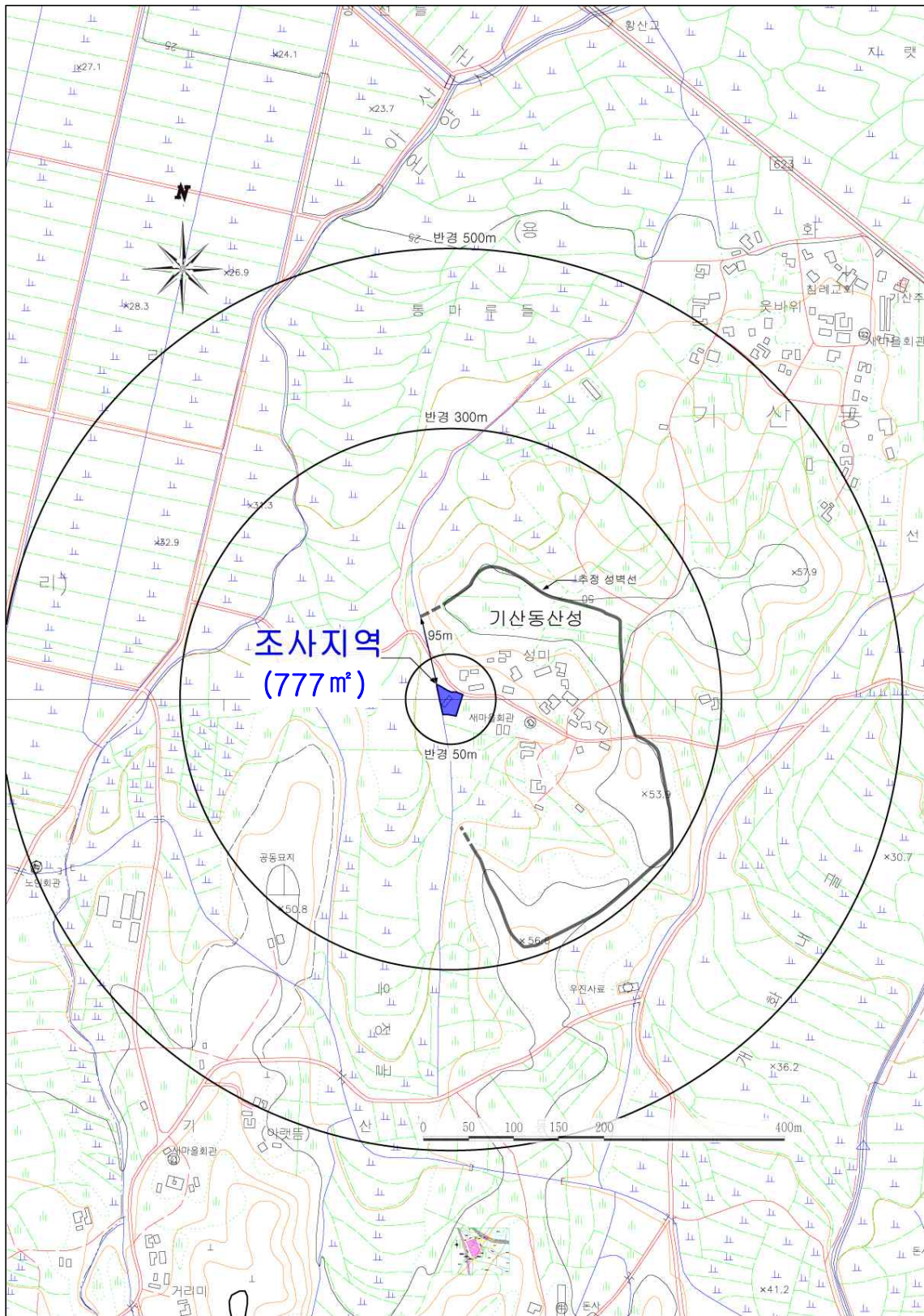
조 사 보 조 원 : 장 영 미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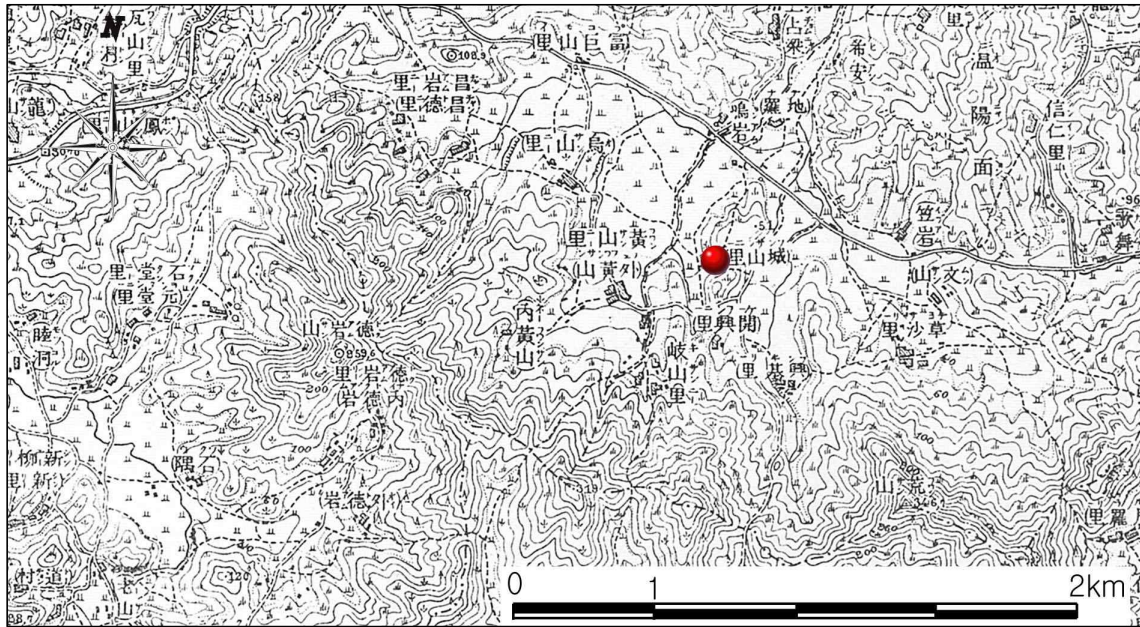
1)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1, 『忠南地域의 文化遺蹟-濶陽市 牙山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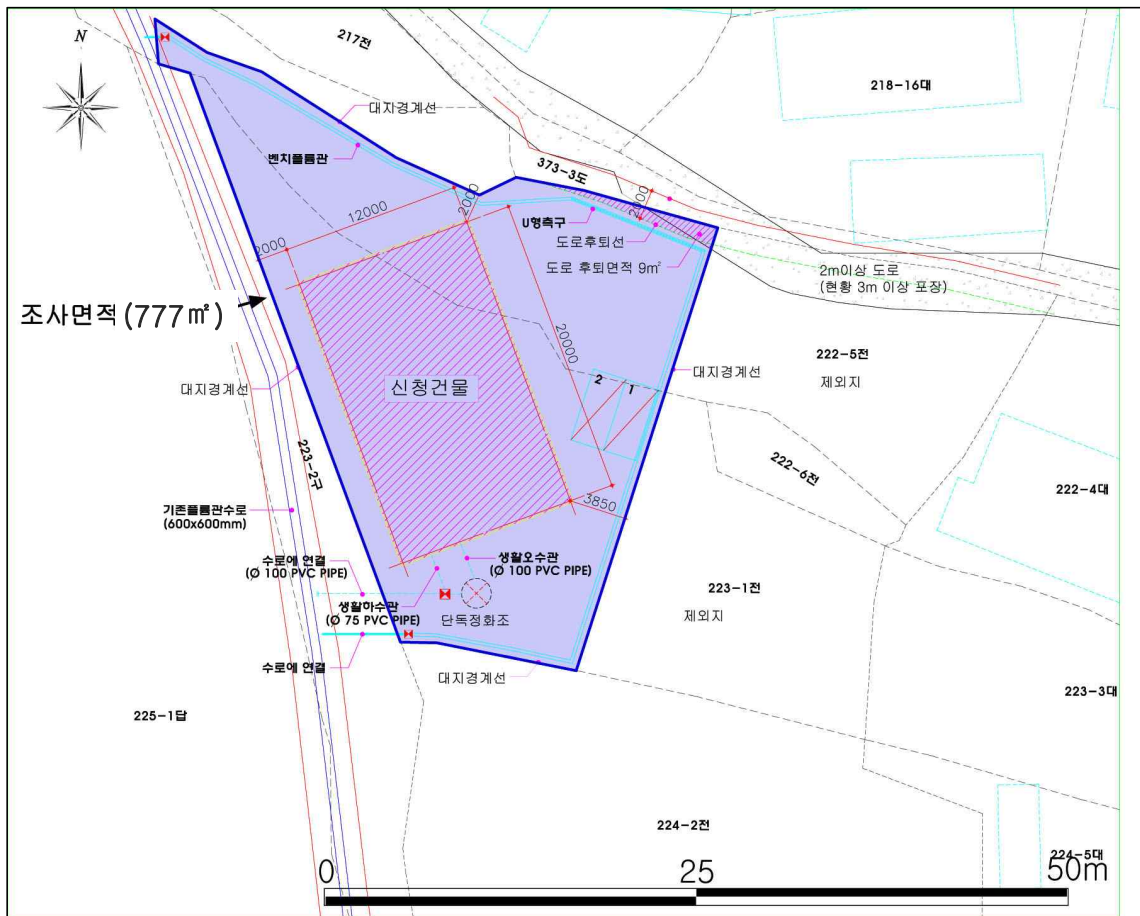
【圖面 1】 調査地域 位置 및 周邊 文化遺蹟 分布圖(1/25,000)



【圖面 2】 調査地域 位置 및 周邊 細部 地形圖(1/25,000)



【圖面 3】 調査地域 周邊의 1900년대 地形(1/5,000)



【圖面 4】 調査對象地域 範圍圖 및 製造施設 配置計劃圖(1/500)

## II. 調查地域의 環境

### 1. 地理學的 環境

조사지역이 속한 아산시는 충청남도 서북부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경기도 평택시, 동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해 있다. 남으로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예산·공주와 접하며, 서로는 아산만 삼교호를 경계로 당진군과 접해 있다.

조사지역의 주변지형을 살펴보면, 북쪽 5.3km 직선거리에 곡교천이 위치하며, 조사지역 서쪽에 위치한 건천류가 북북동쪽에 위치한 신정호로 이어져 결국 곡교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서쪽부터 남동쪽으로 이어지면서 맹산(253.8m), 덕암봉(233.5m), 황산(347.8m) 등의 험준한 산지가 2km 이내의 짧은 거리를 두고 환상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서쪽에 위치한 곡부주변이 밭과 논 등의 현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서쪽을 제외한 동남북쪽으로는 서쪽이 개방된 반월형의 낮은 산지(57.9m)가 조사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산능선부 및 내부는 밭이나 논 등의 현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산 능선이 완만하여 거의 전면에 걸쳐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지형개변이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능선 정상부의 평탄부 주변으로는 기산동산성의 성벽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남동쪽에 위치한 539m 및 56.6m 미고지 사이의 凹部 주변으로는 완전한 토축의 성벽형태가 잘 남아 있어 산성의 존재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 歷史的 背景

아산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백제 성립 이전에 기원을 전후한 시기 아산지역은 마한의 세력권 하에 있었으며, 대체로 백제의 영역과 그 세력권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한은 54개에 달하는 소국들의 연맹체에 불과하였으며, 이 시기 아산지역에는 발달된 청동기문화를 계승하여 일정한 소국이 형성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문헌기록이나 현재 고고학적으로는 그 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아산 탕정의 용두리 진터유적<sup>2)</sup>이나 밖지프레유적<sup>3)</sup> 등이 조사되어, 아산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마한세력의 기원이나 실체에 대해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기원 이후 아산지역이 어느 시기에 백제 영역으로 들어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2)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 『아산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I-2지점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집.

3)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 『아산 탕정 LCD단지 조성부지 2구역내 2-2지점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집.

은조왕 36년 탕정성의 축성기사가 보이고 있어, 점차 시기가 올라고 있는 원삼국문화의 고고학적 자료와 더불어 이미 기원 직후에 아산은 백제의 영역에 들어왔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짐쳐지고 있으나, 이후의 기록과 초기 백제의 세력권을 고려하며, 3세기 고이왕대 이후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후 백제시대에 아산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이다. 이는 백제의 중심영역이 한강유역으로부터 금강유역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동시에 아산지역이 대고구려의 국경선을 접하는 접경지대이자 군사적 전략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산의 전략적 비중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의 유력한 토착세력들은 중앙정계에 적극적으로 진출, 일정한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도 직후인 삼근왕대 좌평 해구가 은을 연산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대두산성에서 반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세력거점이 되었던 대두산성이 아산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은 웅진 도읍기에 아산지역이 갖는 정치적 비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산지역에서 백제시대의 상황을 말해 줄 수 있는 유적이 발굴, 조사된 예가 없는 실정이어서 향후 조사성과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의 멸망 직후인 문주왕초 통일신라는 탕정군을 탕정주로 개명하고 일시 중앙에서 총관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백제부흥군과 당군에 대한 신라의 군사거점 지역으로서 역할을 위해 취했던 행동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 아산은 백제멸망 직후의 전란기에 군사적 요충지로 부각된 것을 제외하면, 이후 정치적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수도인 경주에서 지리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정치적인 부문에 제한될 뿐이며, 실제적으로는 서해안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교통상으로는 이 지역이 중요한 해로의 관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말기 신라군이 당군을 맞이하기 위해 배를 탔던 곳이 아산만을 두고 북쪽에 위치하였던 평택의 남양포구로 비정되고 있는 점에서 삼국시대 신라와 중국과의 대외항구가 아산만 주변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시대 역시 아산지역은 陰峯이라 불리웠는데, 고려초 仁州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가 명종 2년 경에 백제 당시의 이름 牙述을 계승한 牙州로 다시 바뀌게 되면서 지방관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왕조는 통일 이후에도 한동안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다고 성종 대에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비로서 가능하였는데, 아산지역에는 당시 지방관 파견이 이루어지다가 현종 9년 천안부에 소속되면서 지방관의 파견이 끊어지게 되었다.

한편, 고려시대 아산지역의 3개 군현인 아산, 온양, 신창지역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초기 대 후백제 건제의 거점으로서 그 전략적 의미가 부각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그 중요성이 약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산지역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해운의 거점으로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는데, 아주의 使涉浦에 조창을 설치하고 河陽倉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양창은 전국 12조창의 하나로서 조세의 수집, 보관, 수송의 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이 지역은 현재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고려 말 공양왕대 신창현에 당성의 설치하는 삼고친의 해운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조운상의 역할은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아산지역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圖面 5】해동지도상의 아산현 고지도

### 3. 考古學的 環境

아산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서는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최근 지역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사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아산 탕정면 일대는 대규모 지방산업단지과 그 제반관련시설이 조성되면서 이에 따르는 구제발굴이 잇따르고 있으며, 그 결과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군이 확인되는 등 고고학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산지역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유물이 확인된 예는 많지 않으나, 최근 구석기유적의 조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아산지역 일대의 구석기시대 문화상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지역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은 실옥동유적<sup>4)</sup>과 권곡동유적<sup>5)</sup>이 있으며, 아산 동북쪽에 위치한 용두리유적<sup>6)</sup>과 박지르레유적<sup>7)</sup> 등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풍기동유적<sup>8)</sup>과 성내동유적<sup>9)</sup>이 조사되었으며, 인근에서는 천안역세권 신도시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당시 확인된 매편리·명암리유적<sup>10)</sup>과 탕정면 명암리 일대의 테크노컴플렉스 지방공단 조성지역에 대한 일련의 조사<sup>11)</sup>에서 유적의 징후가 확인되었다. 정식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풍기동유적에서는 장방형 집자리에서 단사선문, 횡주어골문, 능형집선문 등의 즐문토기편과 갈돌·갈판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으며, 성내리유적에서 조사된 평면 장방형과 말각방형의 집자리의 내부에는 화덕시설과 주공이 설치되어 있었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아산 지역 전반에는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체로 곡교천 수계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의 조사례는 많지 않으나, 용화동유적, 풍기동유적, 권곡동유적<sup>12)</sup>에서 주거지와 토광묘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아산 탕정의 용두리 진터유적과 박지르레유적 등에서 이른 시기로 판단되는 원삼국시대 토광묘군이 확인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 4) 忠淸文化財研究院 2004, 『아산 실옥 대우아파트 조성부지내 아산 실옥동유적』 현장설명회 자료.
  - 5) 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아산 권곡동유적』.
  - 6) 충청문화재연구원 2007, 『아산 탕정 제 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 I 구역 도로개설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7)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아산 탕정 LCD단지 조성부지 「2구역」 내 2-2지점 문화유적 발굴조사』.
  - 8) 구자진 2004, 「아산 풍기동유적 발굴조사개보」, 『百濟時代의 對外關係』, 湖西考古學會.
  - 9) 구자진 2005, 「아산 성내동 신석기유적」, 『湖西地域 文化遺蹟 發掘成果』, 湖西考古學會.
  - 10) ①忠南大學校博物館 1999, 『天安 驛勢圈 新都市 開發事業地域內 文化財調查報告』.  
②朴淳發·成正鏞·李亨源 2002, 「牙山灣地域 新石器遺蹟」, 『百濟研究』第35輯,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 11) ①忠南大學校博物館 1996, 『牙山 테크노컴플렉스 地方工團 造成地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②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2000, 『牙山 테크노컴플렉스 地方産業團地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③忠南大學校博物館 2001, 『牙山 테크노컴플렉스 地方産業團地 造成敷地內 牙山 鳴岩里遺蹟』5·9地點 現場說明會 資料.  
④羅建柱·姜秉權 2003, 『牙山 鳴岩里遺蹟』, 忠淸文化財研究院.
  - 12)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아산 권곡동 서해그랑블아파트부지내 아산 권곡동유적』.

### Ⅲ. 調査内容

조사지역은 충남 아산시 기산동 222-5번지의 1필지로서, 서쪽으로는 완만한 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건천류가 복류하여 신정호로 흘러들고 있다. 서쪽을 제외하고는 조사지역을 둘러싸면서 해발 60m가 안되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반월형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이 산지를 따라 기산동산성이 위치해 있다.

1991년 지표조사 당시 조사지역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형태의 못이 있고 주변으로 논 경작지가 위치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 복토가 이루어지면서 밭 경작지로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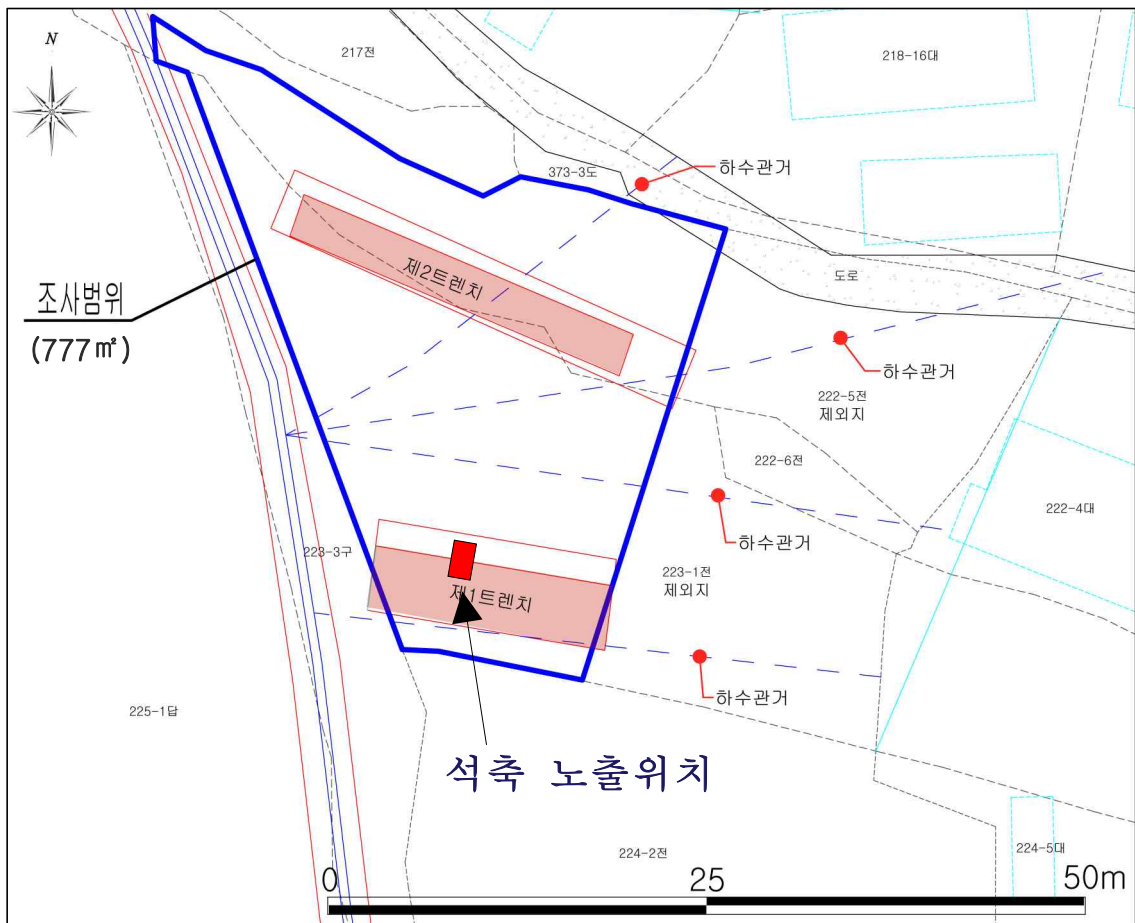


【寫眞 1】 조사지역 주변의 위성사진

조사는 조사지역이 반월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형의 중심 곡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초 남북방향으로 곡부를 횡단하는 트렌치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조사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곡부의 경사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곡부방향인 동서방

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여 곡부상의 퇴적양상 및 기존 지표조사 당시의 연못지의 이전 상황을 살피는데 주력하였다. 조사시 복토는 약 30cm내외 깊이는 1m 내외정도 이루어져 있었으며, 우선 이렇게 복토가 이루어진 부분을 제토한 후 원 생활면부터 시굴 트렌치 설치작업을 실시하였다.

트렌치는 모두 2개소 설치하였다. 최초 3개소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굴토과정에서 예상보다 굴토량이 많아 이에 따른 토사 적재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주변으로는 농로 및 농작물이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고 지반이 연약한 문제로, 조사범위 경계에서 일정거리를 띄워 트렌치를 설치하고 남과 북쪽에 각각 트렌치를 설치한 후 굴토된 흙을 중앙부에 적재하게 되었다.



【圖面 5】 조사지역 내 트렌치 설치 및 지하매설물(하수관거) 분포도(1/500)

## 1. 제 I 트렌치

제 I 트렌치는 조사지역의 평면형태 및 원지형인 곡간부의 방향에 따라 동서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우선 트렌치를 설치할 위치에 성토되어 있는 흙을 걷어내기 위해 폭 6m, 길이 16m 정도의 상부 토사를 북쪽 측면으로 제토한 다음, 원지형의 지표를 따라 재굴착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지반이 전체적으로 약해 지속적인 붕괴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구릉지에 서와 같은 수직 굴토가 아닌 경사면을 주어 단면 V자 형태로 트렌치를 굴토하였다.

원지형에 대해 폭 4m 정도, 길이 16m 정도로 굴토하였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자연퇴적이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까지 발경작지였던 표토 하부에서 이전에 논 경작지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성층이 확인되었다. 논 경작층 이후 층위에서만 수평적인 면을 보이고 경작층 하부로는 두 가지 층위 양상이 관찰되었다.



【寫眞 2】 제1트렌치 퇴적양상 및 호안석축 측면 노출모습

우선 논 경작층 하부에 위치하여 망간집적이 이루어진 층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기에는 힘든 석재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망간집적층으로 보이지만, 석재가 경사져 놓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의 층위 생성 시점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석재양상이 남쪽의 반대편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진행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재 주변으로 트렌치 벽면을 1m 정도 들어가 석축면 조사를 실시하여 석축의 여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기존의 퇴적되어 있던 사질이 일부 퇴적된 망간집적층을 굴토한 후 석재를 호안시설과 같이 벽면을 따라 비교적 정연하게 쌓은 것이 상부부터 7단 정도가 확인되었으며, 계속해서 하부로 이어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조사 성격상 완전한 배수작업을 할 수



【寫眞 3】 제1트렌치에서 확인된 호안석축의 제방방향에서의 모습과 자기편 노출모습

가 없기 때문에, 호안석축의 현상적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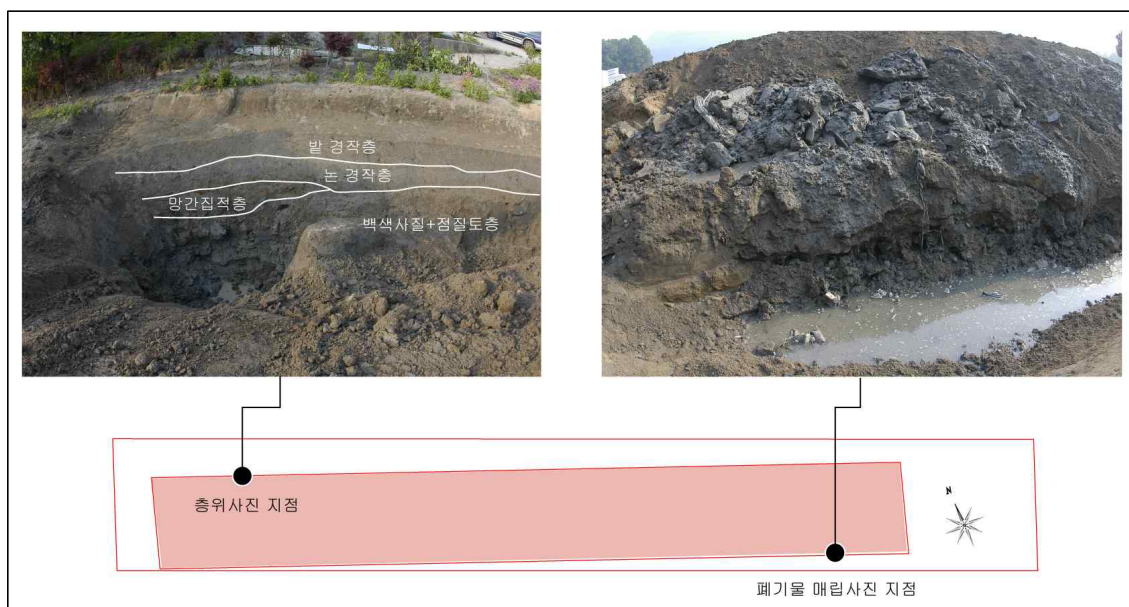
한편, 퇴적양상에 있어 석축의 안쪽인 동쪽에서는 백색의 사질토에 점질토가 일부 섞인 유수에 의한 자연퇴적층이 확인되고 있으면서, 점차 내부퇴적의 증가에 따라 육지화 되는 것으로서 망간집적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기존 지표조사 과정에서 조사지역 주변으로 6×2m 정도의 연못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트렌치에서 확인된 석축이 연못지로 표현된 지점의 原狀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1트렌치 조사과정 중 석축 사이에 끼어 있는 퇴적토상에서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유약이 높은 온도로 인해 대부분 기포가 발생한 상태이지만, 태토로 볼 때 청자 접시나 완으로 판단된다.

## 2. 제Ⅱ트렌치

제2트렌치는 조사범위내 북쪽에 위치한 트렌치로서 제1트렌치와 같이 동서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제1트렌치에서와 같이 우선 트렌치를 설치할 위치에 성토되어 있는 흙을 걷어내기 위해 폭 4.7m, 길이 32m 정도의 상부 토사를 남쪽 측면으로 체토한 다음, 원지형의 지표를 따라 재굴착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제1트렌치에서와 같은 지반상황을 보여 경사면을 주어 단면 V자 형태로 트렌치를 굴토하였다.



【圖面 6】 제2트렌치 퇴적양상

원지형에 대해 폭 3m 정도, 길이 26m 정도로 굴토하였는데, 굴토과정 중 동쪽 말단 근처에서 하수관거가 노출되어 상부 체토면적에 비해 4.5m 들여 굴토를 실시하였다. 한편, 동쪽으로부터 15m 지점까지 건축폐기물과 쓰레기 등의 폐기물들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지하수가 유입되어 흙탕물을 이루고 있었다. 좀 더 하강하려 했으나, 급격한 침수와 함께 폐기물에 의한 악취 및 붕괴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하강이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트렌치 중간부분에 역시 하수관거가 노출되었다. 결국 나머지 서쪽 부분에 대한 굴토작업만이 가능하였고 조사결과 제1트렌치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사질토와 점질토가 섞인 자연층 중간에 주변 구릉지에 노출되어 있는 노두와 같은 큰 암반덩어리가 노출되었다. 이것은 북쪽에 위치한 구릉성 산지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풍화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2트렌치에서 확인되는 주요 퇴적양상은 동쪽 지역 대부분이 건축폐기물과 쓰레기의

매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서쪽 일부지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전체적으로 제1트렌치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제1트렌치에 비해 풍화되어 부정형한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 큰 암석들이 백색의 사질토와 점질토가 섞여 있는 층에 퇴적되어 있다. 이외 규모는 작으나 경작층의 분포와 망간집적층의 양상에 있어서는 제1트렌치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제2트렌치 조사과정 중 상부 성토층이나 밭 경작층에서 일부 적갈색 와편 등의 유물은 확인되었으나, 유구라 할 수 있는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 IV. 調查結果

아산시 기산동 222-5번지 농산물 가공시설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위해 2009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의 일정으로 777m<sup>2</sup>의 조사범위 내에 모두 2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층위양상 및 유물이나 유구 등의 유적 징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상부 성토와 함께, 지하에 건축폐기물과 쓰레기의 매립이 제2트렌치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외 부분과 제1트렌치에서 나타난 층위양상은 청회색의 미세사질점토와 백색 사질토+점질토의 자연퇴적이 이루어졌으며, 동쪽에서 서쪽의 곡부를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층을 이루고 있다. 한편, 2개의 트렌치 상부에는 최근의 밭 경작이 이루어지기 전 논 경작지로 조사지역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적의 징후로서 확인된 것은 제1트렌치의 중동부지점으로서 자연적으로 퇴적될 수 없는 석재양상이 노출되어 일부 면을 드러낸 결과 약간 거칠지만 7단 이상의 호안석축 양상을 띠고 있는 석축 모습이 관찰되었다. 기초사된 내용과 전체적인 지형적 입지를 고려할 때, 내부퇴적양상으로 보면 호안석축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벽의 기저부가 잔존하는 양상으로도 이해되어 전면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보다 명확한 성격이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석축 사이의 내부 퇴적토상에서 유약이 높은 온도로 인해 다수의 기포가 발생하여 변색되었지만, 태토상태를 볼 때, 청자 접시나 완으로 보이는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지만 대체로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석축의 축조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석축과 관련된 내부 퇴적토층은 상부의 밭경작층과 논경작층 하부에 위치하면서, 땅간집적이 집중되어 있는 사점질토층부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 성토층이나 밭 경작층에서 옹기편이나 어골문 와편등이 일부 산견되는 점에서 볼 때, 지표에서 관찰되는 옹기·와편 등의 파편들은 성토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寫眞 4】 조사지역 항공사진(북쪽에서)



【寫眞 5】 조사지역 항공사진(동쪽에서)



【寫眞 6】 조사전 전경[북동쪽에서]



【寫眞 7】 조사전 전경[북서쪽에서]



【寫眞 8】 제1트렌치 굴토광경[동쪽에서]



【寫眞 9】 제1트렌치 굴토 및 벽면 정리루 전경[동쪽에서]



【寫眞 10】 제1트렌치 층위 전경[남서쪽에서]



【寫眞 11】 제1트렌치 확인 호안석축 노출모습[동쪽에서]



【寫眞 12】 제2트렌치 굴토 광경[동쪽에서]



【寫眞 13】 제2트렌치 동쪽부분 건축폐기물 노출모습[북쪽에서]



【寫眞 14】 제2트렌치 굴토 및 벽면 정리 완료후 전경[서쪽에서]



【寫眞 15】 제2트렌치 층위 전경[남쪽에서]



【寫眞 16】기산동산성 항공사진[북쪽에서]



【寫眞 17】기산동산성 남쪽소로 절개부 성벽 잔존상태[서쪽에서]



【寫眞 18】 기산동산성 북쪽 상부 평탄대지 전경[남동쪽에서]



【寫眞 19】 기산동산성 내부 산포유물